

해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공식 인증되다

인증기간 4년간...아동 행복 환경 구축 친환경 목재·ESG 상상놀이터 등 운영

해남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1일까지 4년간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도시만이 받을 수 있는 국제적 인증으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정책 전반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2



해남군이 지난해 12월 군청 대회의실 2층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남군 제공〉

2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과 아동친화도시 실태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군은 '아동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에 힘

써왔다. 대표적으로 해남읍에 조성된 친환경 목재놀이터는 자연 소재를 활용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고, 지역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참여형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동친화 둘

레길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걷기 좋은 코스와 아동권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아동의 건강할 권리와 놀 권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활용 ESG 상상놀이터'는 아동의 창의성과 환경 감수성을 바탕으로 아동 스

로 페트병, 우유팩, 종이상자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장난감을 제작하고 자유롭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아동·청소년 참여단 운영으로 군정 전반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노후화된 횡단보도 도색, 마음치료 심리상담 운영, 해남공룡대축제 버블파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돼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도시가 진정한 미래도시"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유니세프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의 모델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지역 내 교육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아동권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연령별·계층별 아동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발굴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 곱창김, 中 상해 식품박람회서 '호응'

홍보 전시장 운영...고급화 등 전략

진도 곱창김이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IFA)에서 호응을 얻으며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SIAL)에 동양영어조합법인과 함께 참가, 진도 곱창김 홍보 전시장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도 곱창김은 다수의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 의뢰를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동양영어조합법인은 중국 방송사(CCTV)로부터 장인 기업으로 선정돼 인터뷰를 하며 진도 곱창김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말레이시아 구매자(바이어)의 요청으로 곧 정식 계약을 할 예정이며, 중국 강소성에서 열린 한국 식품 설명회에도 진도 곱창김이 홍보 제품으로 섭외되는 등 국제적 인지도를 높

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진도 '곱창김(GOP CHANG GIM)'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포장 디자인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 김 포장지보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인해 소비자와 구매자(바이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진도 곱창김'의 고급화에 성공했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SIAL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진도 곱창김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과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종료 직후에 동양영어조합법인은 중국 청도거성실업과 200만 달러(27억1천여 만원) 규모의 조미김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수출의 물꼬를 텄다.

진도=박세권 기자

완도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

19-22일 미국·프랑스 등 11개국 참가 해양치유 조명·슬로시티 발전 방안 모색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완도군에서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가 열린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슬로시티와 해양치유'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느림의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총회는 도시 간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 정책 공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 174명의 슬로시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변공원, 청산면 등에서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회원 도시 정책 발표 ▲해양치유와 숲 치유 체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 투어 등이 진행된다.

완도군은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슬로시티 도시 간 협력은 물론 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참가자 유입에 따른 관광, 숙박 등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점 사업인 '해양치유'가 국제 무대에서 조명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슬로우 장터(슬로시티 특산물 판매관) 운영, 해양치유-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버스

킹 공연, 장보고 옷장 등 주민들의 국제 행사 참여로 공동체 의식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군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달 30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준비 상황 및 통역, 교통, 홍보 등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총회 기간 중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해변공원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하고 해양치유를 비롯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완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

18-26일 매주 수·목 오후 2시 교육실서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는 11일 "민주항쟁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5·18과 여성 광장의 교차로에서 만난 민주주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젠더기반폭력을 추방하는 여성인권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 '5·18과 여성 광장의 교차로에서 만난 민주주의'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교육실에서 개최

된다.

해당 강좌는 총 4회기 구성으로, 강의 주제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반성적취 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여성 혐오·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성산업 해체의 길, 성평등 모델에서 찾다 등으로 기획됐다.

강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061-276-8297)로 전화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는 목포여성인

권지원센터에서 2017년부터 지속해온 사업으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사업은 젠더 기반 폭력 근절 활동가들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참여자들의 공감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와 지역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취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의식 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시민강좌는 45주년 목포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 주관으로 광장에 나섰던 여성들의 민주항쟁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더욱 뜻 깊다. /목포=정혜선 기자

영암 상수도 현대화 사업...예산 15억7천만원 절감

노후 상수관로 교체·누수탐사 등 성과 2030년 유수율 70%·58억 절약 목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영암군의 노력이 15억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 상시 누수탐사(사진) 등을 내용으로 2019년부터 시행한 영암군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유수율을 제고, 수돗물 안정 공급, 예산 절감의 성과를 냈다.

사업 초기인 2020년 공급 수돗물 총량에서 누수량을 뺀 영암군의 유수율은 47.7%, 연간 누수량은 710만톤이었다.

2023년 수돗물 생산원가인 11당 2천130원으로 환산하면 150억원이 넘는 손실이다.

그동안 영암군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 2024년 유수율을 56.3%로 8%p 끌어 올리고, 수돗물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도 높였다.

누수량도 74만톤 적은 63만톤으로 끌어내려 2023년 생산원가 기준 15억7천만원 가량을 절약했다.

영암군민의 일일 평균 수돗물 소비량이 4인임을 감안할 때, 이는 185일 소비량에 해당한다.



또한 영암군은 2024년 수도관 관리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누수 탐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과 상승 효과를 내 총 141만톤의 누수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생산원가 기준 연간 총 3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에 해당한다.

영암군은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유수율 70%, 연간 273만톤 누수 저감, 58억원의 예산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손철진 영암군수도사업소장은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 등 유지관리를 유수율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영암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 섬 밴댕이 축제 '성료'

체험형 프로그램 '호응'

제철 수산물 맛보고 생태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안 밴댕이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신안군 증도에서 '제15회 섬 밴댕이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뉴월 밴댕이'라는 속담처럼 6월 제철을 맞은 밴댕이의 담백하고 고소함을 주제로 한 먹거리 중심의 축제로, 관광객에게는 제철 수산물의 참맛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밴댕이는 갑수, 철분,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축제는 증도 우전마을 설레미체험장 일원에서 열렸으며 ▲100인분 밴댕이 비빔밥 만들기(사진) 및 시식 행사 ▲밴댕이 초무침·구이 등 다양한 먹거리 판매 ▲밴댕이 가요제 및 지역 출신



가수의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돌게잡이 ▲카누나 오리배 타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신안군 보건소는 행사에 앞서 수산물 및 식품 안전을 위한 비브리오 검사를 사전 실시, '음성' 판정을 받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김대인 부군수(신안군수 권한대행)는 "밴댕이 축제는 섬 수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

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실속형 축제"라며 "정경 생태환경과 수산 자원을 활용한 신안군만의 차별화된 축제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증도는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 시티 지정, 2008년 전국 최초 갯벌도립공원,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10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1년 탐사르습지 공식 인증 등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청정 섬이다. /신안=양홍기 기자